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26회, 우리는 연합하여 세운다, 에베소서 4:1-16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분은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6, 연합하여 건설합니다, 에베소서 4:1-16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한 이전 강의에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이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서 우리와 함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당신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수록 우리 자신이 더 상쾌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강의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많은 내용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연합의 정신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3장 끝에서 4장 첫 부분까지 다루면서, 저는 찬송가에 주의를 기울였고 4장의 처음 세 구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구절들로 돌아가서 16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알아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을 펴보세요.

ESV에서 읽었는데, 당신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유대로 영의 연합. 한 몸과 한 영이 있습니다. 당신도 부르심에 속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곧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는 또한 더 낮은 지역인 땅으로 내려갔다. 내려오신 분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시니,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요, 우리가 믿음의 합일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합일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다시는 파도에 밀려 요동치며 온갖 교훈의 바람에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사람의 간계와 간사한 궤계로 말미암아 교훈의 모든 바람에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를 위해 온 몸이 모든 관절로 연결되어 결합되고 결합되어 각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웁니다. 여기서 제 서투른 독해에 대해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4장의 처음 세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들 중 몇 가지에 여러분의 주의를 조금 끌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윤리적 부분을 소개하고 윤리의 주제와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연합이 영에 속하며 그 연합의 유대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런 요소들 중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든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는 아마도 윤리를 배우고 계속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열렬히 하라고 부르면, 그는 유지하다, 이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들에게 이 통일을 위한 어떤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의 측면에서 내가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일곱 가지 공통된 것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을 이러한 통합의 기초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몸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일찍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이제 한 몸의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인봉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화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희망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상속에 대해 말하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분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수단이며,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 하나의 공유된 공통된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세례. 한 번의 세례는 질문 중 하나이며, 나중에 살펴볼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 번의 세례는 우리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한 번의 세례는 다른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모든 이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나열하고 말하지만,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 여섯 가지를 공유하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로 나열합니다. 그는 모든 것 앞에 하나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저것 하나, 저것이 하나, 그래서 그는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것을 관계의 맥락에 넣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일곱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회는 연합이 우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의미하는 침례가 침례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수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입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침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반드시 물에 잠기거나, 물에 의해, 또는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잠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잠기다, 잠기다, 담그다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이 언어는 세례에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신약성서에서 세례의 유일한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가 하나뿐이라고 말했을 때, 학자들은 그가 무엇을 언급하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로교와 침례교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될 수 없겠죠? 만약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침수 세례이고, 장로교가 "저는 머리에 물항아리를 쓰고 있었어요."라고

말한다면, 오, 제 가톨릭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이 공통점이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되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인가요? 오늘날 학문에서 흥미로운 점은 개신교 학자와 가톨릭 학자는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를 함께 읽고, 수많은 플랫폼에서 함께 상호 작용합니다. 사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가 다양한 교파의 학자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제 고백적 소속과는 별개로 많은 교파의 사람들과 일년에 두세 번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세례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기서는 침수로 하는 기독교 세례에 대한 강조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어가 침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세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영리한 방법일까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례와 세례를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논의 주제로 제기할 때, 우리는 종종 몇 가지 사항을 간과합니다. 침례교도는 장로교도와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싸우고 싶어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신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을 때, 신약 본문 외의 고대 본문에 관심이 있는 신약 학자로서 디다케와 같은 본문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쓰여진 초기 교회 문서의 제7조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디다케 제7조는 세례의 공식과 세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1세기 말부터 물이 너무 차가우면 물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흐르는 물이 없다면 실제로 수영장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제 학생 중 일부가 실제로 세례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초기 교부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차갑다면, 아프리카에서 자란 우리를 위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에 물이 제한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릴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장로교회와 천주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 규정은 같은 조항 7에서 앞서 침수여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다른 모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한 번의 세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례가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에서 사용되는 단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기 위해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세례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연합 또는 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같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말하는 명확한 구절이 신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맥락에서 놓인 성령 세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더 말이 되는 것은 한 번의 세례인데, 아마도 제가 라틴어 표현인 *terminus technicus* 로 사용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한 번의 회심을 받았다는 표현,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으로 왔다는 표현, 우리 모두가 한 번의 기독교 입문을 거쳤다는 표현, 또는 우리 모두가 세례를 통해 한 번의 정화 의식을 거쳤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례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릅니다.

초기 교회 대부분이 침수로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다케와 같은 문헌은 그 당시부터 이미 선택 사항을 처방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초기 교회는 분명히 한 가지 세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우리만큼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는 일체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분명히 초기 교회의 일부였고 모든 회원이 거쳤던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13장에서 세례에 대한 단어가 사용될 때, "한 영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읽힙니다. 그 특정 구절의 맥락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단어의 맥락은 일체감과 그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부분이 여기서 연주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카리스마적인 친구 중 일부는 저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들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저는 이 특정 텍스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다른 곳에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걸려 있는 연합의 맥락에서 사용했고, 그는 실제로 그들이 공유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면,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의미를 봅니다. 하지만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도 모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세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참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세례는 아마도 개종 과정을 포함하는 기독교 세례를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많은 침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 위해 목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초기 교회가 다른 형태의 세례를 배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디다케 7조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요. 바울은 연합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연합에 대한 신학적 토대는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구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이며,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와 다른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그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대화를 안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틀이며,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은혜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은혜는 주님에 의해 주어진다. 이 주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구절들 중 일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 중 일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몇 분 전에 읽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구절에서 진지하게 읽어볼 만한 부분을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포로를 끌고 가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가 승천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지만 그는 또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8절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승천했을 때, 그는 많은 포로들을 이끌었고, 많은 포로들을 이끌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시편 중 하나에서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그 특정 구절은 실제로 학자들에게 이야기할 거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인용문이 나온 곳이라고 믿는 시편 68편 18절에는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어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셨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으셨고, 심지어 반역자들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도록 받으셨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시험과 비교해보면, 에베소서의 시험은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가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나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말은 무슨 뜻인가? 하지만 그는 또한 더 낮은 지역, 즉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내려오신 분은 모든 하늘 위로 훨씬 올라간 분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함이었다. 이 시험을 보면, 학자들은 실제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각해내려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이 강의를 오디오가 아닌 영상으로 듣고 있다면, 제가 제시한 이미지를 잠깐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선물을 받으셨을 때.

시편 68편. 에베소인의 시험을 주목하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시리즈를 오디오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이 이 시편에서 주제를 따온 것이라면, 시편에서는 2인칭인 you에서 에베소서에서는 3인칭인 he로 주제를 바꾼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그가 인류에 대한 언급을 단수로 사용했고, 에베소서에서는 anthropos 라는 단어가 인간을 지칭하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그는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을 몇 개 집어보면, 여러분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토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의 시험이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거나 어떻게든 다시 썼다면 이방인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도 괜찮지만, 폴에게는 그것이 일하기에 좋은 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독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인지, 왜냐하면 같은 틀이 독자들과 소통하거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습관이 있지만, 저는 제가 젊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가끔 설교 중간에 멈추고 흔한 찬송가나 흔한 현대 노래의 몇 줄을 언급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친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믿음이나 요소의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형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랍비 테스트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이 시편이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고 재해석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해석적 방법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시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험을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율법을 사람들에게 다시 가져오기 위해 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부 랍비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시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 시험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에베소 독자들에게는 또 어떤 것을 불러일으킬까요? 에베소 독자들이 그 시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어떤 공명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소아시아 경연 대회에 완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여 여기서 이중 검 요소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를 승리한 왕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적의 진영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풍부하게 가지고 거기에서 선물을 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시편 68을 재해석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1세기 작가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편이 그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고 그의 틀을 통해 작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성경에서 그 두 줄이나 세 줄이 여러분의 성경에서 인용문으로 들여쓰기 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자들이 그것이 그 특정 경연에서 재작업되고 있는 시편 68편의 인용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용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싶으시겠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상의 낮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라가고, 내려와서 땅의 낮은 부분으로 가신 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초기 교부들의 견해 중 하나는 이것이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고 읽습니다. 예수가 지하 세계로 가서 악의 세력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데스로 가서 포로들을 사로잡고, 승리의 왕으로 일어나서 그의 백성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에 대한 언급으로 읽습니다. 이 견해에서 그것은 강림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유일한 문제점은 내려온 사람이 또한 승천한 사람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성육신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승천을 거의 바깥쪽으로 뒤집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암시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내려왔고, 승천의 날에 승천하신 분이 내려왔고, 오순절 날에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카리스마와 오순절 친구들은 그저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의 중요성을 알잡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어떤 것에 대한 확인을 찾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는 동료 중 한 명이 한 말을 다시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밑줄을 긋던 몇 가지와 이번에 보는 다른 것들이 눈에 띄었고, 왜 그렇게 복잡한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목표는 승리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

악의 세력에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베푸는 것. 권세와 권세를 정복하고 자신의 최고 통치권과 그들을 제자리에 두는 능력을 행사한 분의 이미지, 선물을 주는 것, 선물을 주는 동안 선물을 주는 사람들을 위임하여 그들이 자신이 준 선물과 은혜에 방해받지 않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바울이 시편 68편을 다시 쓰고 있다면 충분히 공정할 것입니다. HR Meinl 에서 그가 말하는 것과 공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독자들이 있는 HR Meinl 에서는 몇몇 아 피칸 신들이 지하 세계의 모티브, 지하 세계의 유령, 강력한 지하 세계의 유령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지하 세계의 유령이 그들의 신봉자들이 친절하고 올바른 희생을 바치고 올바른 도움을 구하면 선을 가져오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3년을 살았고, 알고 있는 바를 실제로 독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통치자, 권세, 심지어 지하 세계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셨고, 그분은 그 위로 높이 올라가셨으며, 이제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분의 백성은 그 권세들이 자신들에게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확실히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최근의 주석가 두세 명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최근의 글에서도 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 중 두드러진 사람은 클린트 아놀드인데, 그는 지구의 아랫부분이 세상이나 하데스의 표현으로 해석될 때 1세기의 각 종교적 맥락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썼습니다.

지하 세계 주제는 에베소와 서부 소아시아에서 두드러지며, 다양한 지하 세계 신을 숭배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술과 마법의 여신인 헤카테의 여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실상 그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의 백성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을 주었고, 구체적인 선물을 명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되도록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되도록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단어들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도들을 살펴보죠. 사도라는 칭호에 대한 언급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발견되는데, 교회의 기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그들은 거룩한 사도로 자격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불린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여기지만, 그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들은 바울과 같은 인물, 즉 초기 교회 형성에 기초를 둔 예수의 초기 제자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도록 그 은사들 중 일부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고, 말씀이 보내진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초기 교회에서 기초적인 지도자로서 그 직책을 맡을 은혜를 받은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질 것입니다. 선지자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영에 의해 말하도록 촉구받는 사람들로서 말입니다.

영은 보통 교회의 교화를 위해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신비를 계시합니다. 교화를 강조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언자라는 단어를 그의 점쟁이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서아프리카에 있든 동아프리카에 있든,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에 있든, 누군가가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현대 기독교에서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아가씨, 나는 당신의 속옷 색깔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속옷 색깔을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건가요? 여기 선지자들은 교회를 교화하고 세우기 위해 이 신성한 영감을 받은 지식을 받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메시지에 예측 가능한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신성한 발언으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곳곳을 다닐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단어가 사용된 다른 두 군데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과 그의 딸들을 언급하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사의 일을 하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제 동료 중 일부는 바울이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이 은사의 목록에서 우리가 고려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목사와 교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단어들은 동격 접속사 끝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어에서는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사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즉 교사의 부분에는 관사가 없지만, 이전의 모든 은사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사람일까요? 두 가지 은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는 교사여야 할까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가 아니라 교사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에 언급된 은사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글썄요,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는 하나의 관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설자들은 이전 세 가지 은사가 여정적 기독교 일꾼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많이 움직일 것이고, 아마도 목사와 교사가 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의 사물처럼 보이는 접속사 끝에 의해 연결된 하나의 관사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차이점은 어떤 선물이 사람을 고정된 사람으로 만드는지, 어떤 선물이 사람을 순회 연설가나 노동자로 만드는지입니다.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두 가지 선물을 가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논의 부분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목사 또는 목사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당시 어휘에서 새로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고대 근동의 종교 지도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구약성경 시험에서 하나님은 목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들 중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당신이 아주 잘 아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목양이나 목양은 실제로 장로에 대한 언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래된 언급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특성은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을 눕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고, 올바른 곳으로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목자는 양 떼를 먹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양을 인도하듯이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양치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떤 지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하지만 목사이지만 좋은 교사는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닐 수도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아닌 목사들. 저는 그들이 수석 목사가 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라면, 그것에 대해 마음을 정하십시오. 저는 그저 그 구분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은사에 대해

말하는 이 특정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12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도전입니다.

그는 몇몇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를 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사역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안에서 믿음의 일치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심각한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견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우리가 모든 신자의 신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비롯되거나 가정하는데, 즉 모든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성도들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의 일을 위해 갖추어지고 있다고 읽습니다. 영어로 edify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건축적인 언어이며,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갖추어지고 있으며, 봉사의 일을 위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자의 신권을 고의적이든 의도치 않게 믿는 사람들은 이 관점에 곧장 기울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앞서 언급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다. 지도자들은 은사를 받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다.

저는 가톨릭 학자들이 그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교회 구조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부를 나머지 성인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성인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 특정 관점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성직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평신도는 성직자에 의해 장비된 사람들이고, 이 모든 관점은 에베소서 12장을 싸우기에 좋은 장소로 만듭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은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 고린도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은사는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은사를 받지만,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들이 그 분량에 따라 은사나 은혜를 받는다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능력이 도입됩니다. 우리가 신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장비를 한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권력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의무를 다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를 읽어내는 것은 지나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받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내일 교사가 될 재능을 발견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 구조의 이분법은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한 동료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프랭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각 신자에게 적절한 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은사를 준 사람들 중에서 사역의 일을 위해 다른 신자들을 준비시키는 데 특별히 준비된 다섯 그룹을 나열합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말씀 사역에 은사를 받은 자와 그들이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시 얻고 주목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연합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의 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반복되는 믿음과 지식이라는 주제가 비효율적인데 왜 제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묻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과 지식은 그 연합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연합의 정신으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능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진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목표는 이 재능 있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준비시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제가 발음하는 방식이 흥미로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상한 악센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 미국 친구들 중 일부는 mature라고 말하고 일부는 mature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영국인에 기울어지는데, 그들도 성숙하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숙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남성다움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속기 쉽거나 취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숙감은 경험을 통해 생겨났고,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대표하는지 알 수 있게 했으며, 때로는 지혜롭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남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키의 완전함은 그리스도의 몸이 기능해야 하는 인격성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키에 대해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은사와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체 이미지를 사용하여 몸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몸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말하며 신학자들이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갖추고 있으며,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나 능력의 척도에 따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바라는 목표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갖추기 위해 일한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반영하는 온전한 키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성숙함과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며 이제 그는 교회가 더 이상 무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다니는 파도처럼, 인간의 간계에 의해, 교활한 계략에 의해, 그는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취약하지 않고 대서양의 파도처럼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파도가 작동하는 방식 면에서 정말 끔찍한 대서양의 한 부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목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그들이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온 몸이 연결된 것은 바로 그로부터입니다. 그의 소망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장비할 때, 그들 모두가 모든 사람이 장비하는 모든 관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합되고 함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각 영이 제대로 일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손, 머리, 발이라면, 모두가 함께 일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고

스스로를 쌓아가면서, 그것은 사랑으로 이것을 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서 쌓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지역을 훈계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널리 퍼져야 할 연합의 정신을 이해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훈계로 시작하여 교회의 상태가 되어야 할 정신의 연합을 위해 열렬히 일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리스인, 유대인 또는 로마인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일곱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았으니, 악의 권세를 정복하고 모든 권세가 복종된 승리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언급한 연합이 잘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어를 포착하는 방식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정신, 그가 3장을 마무리한 음표가 공동체 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도록 널리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각 개인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재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모두 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본래의 모습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삶에서 에베소서의 비전을 포착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는 그 연합의 정신이 당신이 그가 주신 힘과 은혜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지역 회중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 함께 해주셔서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서 에 대한 이런 연구를 더 많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6, 연합하여 건설합니다, 에베소서 4:1-16입니다.